

검찰, 수사팀 확대 K스포츠·미르 관계자 '줄소환'

재단 '최순실 역할·영향력' 파악 문체부 국장급 간부들도 조사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의 모금 경위 및 자금 유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수사 검사를 대폭 늘려 실질적인 '특별수사팀'을 운영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21일 "현재 형사8부 소속 4~5명의 검사가 관련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애초 주임검사인 한웅재 부장검사 외에 2명의 주무 검사를 지정했으나 최근 수사 상황이 급진전할 가능성에 대해 추가로 2명의 평검사를 수사에 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르 의혹' 사건 수사 검사가 모두 5명으로 늘어나 실질적으로는 '특별수사팀'이 꾸려진 셈이 됐다.

전날 박근혜 대통령이 '엄정 처벌' 언급을 함께 따라 사건이 특수부 등 대형 부과 사건을 다루는 부서로 재배당될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도 나왔지만, 검찰은 재배당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처음 형사8부에 배당할 때부터 여러 상황을 고려했다"며 "현재로서는 재배당을 할 이유가 없고 형사8부가 계속 수사를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원종 실장 "최순실, 靑 출입한 적 없는 걸로 안다"

이원종 청와대 비서실장은 21일 이른바 비선 실세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최순실 씨의 청와대 출입 여부에 대해 "내가 아는 한에는 없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의 청와대 비서실 국정감사에서 "(최 씨의 출입을) 본 일도, 들은 일도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실장은 미르·K스포츠 재단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에서 공식적인 대책 회의가 열린 적 있으나 질문에 대해 "공식적으로 다른 일 없다"고 답했다.

이어 "국정감사 때 관련 질문도 많이 나왔고 부처별로 했던 일이 계속 해명됐기 때문에 솔직히 (미르·K스포츠 재단 의혹을) 큰 무게를 두고 보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한미, 美전략자산 상시 순환배치 필요성 공감"

국방부는 21일 "한미 양국은 안보협의회(SCM)에서 미국 전략자산의 상시 순환배치를 포함해 확장억제의 실행력을 강화해 나갈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미 전략자산 한반도 상시 순환배치 관련, 일부 언론에 '미국 즉

이 상시 순환배치를 사실상 거절했다'고 보도한 데 대해 이런 입장을 기자들에게 공지했다.

국방부는 이어 "한미는 확장억제의 실행력을 단계적으로 높여 나가기 위해 다양한 방안들을 검토해 나가기로 합의했다"고 강조했다.

'이대' 본관점거 학생들, 85일만에 농성 끝나

이화여자대학교 본관을 점거해 86일째 농성하던 학생들이 최경희 전 총장의 사직서가 21일 수리되자 농성을 풀기로 했다.

이대 학생들은 이날 오후 5시께 보도 자료를 통해 "학교법인 이화학당으로부터 최 전 총장의 사표를 수리했다는 공문을 수령해 본관 점거 농성을 해제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사회 결정을 기쁘게 수용

하며, 본관 내부와 비품 정리가 필요해 구체적인 해제 일자는 학교 본부와 조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사회는 앞서 이날 오후 2시30분에 법원 행정동에서 이사회를 열고 최 총장의 사직서를 수리했다. 이대 학생들은 7월 28일 평생교육 단과대학인 미래라이프대학 설립 계획 철회를 요구하며 본관 점거 농성을 들어갔다.

점거 과정에서 일부 학생들이 교수와

교직원을 본관에서 나가지 못하게 막았고, 이 때문에 최 전 총장이 요청한 경찰이 투입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경찰은 감금 혐의로 일부 학생들을 수사 중이다.

장기화되던 농성은 야권이 '비선 실세'로 지목한 최순실씨를 항한 의혹이 이 대학으로까지 향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최씨의 딸 정유라(20)씨가 이 대학에

부정 입학했으며 학사관리에서도 특혜를 받아왔다는 의혹이 잇따라 제기됐다.

학생들과 함께 총장 사퇴를 요구하던 교수비상대책위원회 교수들이 시위를 예고한 19일 최 전 총장은 결국 사임 의사를 밝혔다.

본관 점거 사태는 일단락됐으나 차기 총장 선출 등 문제가 남아 있어 혼란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장세규 기자

경찰 총기 살해범' 성병대 '구속'

"암살 당할까봐 범행"

사제총기로 경찰관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성병대(46)씨가 경찰에 구속됐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21일 살인·특수공무집행방해·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성씨를 구속했다.

성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한 서울북부지법 신현범 영장전담부장판사는 "범죄 혐의의 소명이 있고 도주 우려가 인정되며, 범죄의 중대성이 비추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성씨는 19일 오후 강북구 번동 오포산터널 입구에서 직접 만든 사제 총을 고(故) 김창호 경감에게 발사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김 경감은 성씨가 같은 건물 세입자인 이모(68)씨를 길거리에서 폭행한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가 변을 당했다.

강간죄 등으로 9년 6개월간 복역하고 2012년 출소한 성씨는 전자발찌 착용 대상자였으나 범행 당시 발찌를 훼손하기까지 했다.

앞서 이날 오전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경찰서를 나와 법원으로 향한 성씨는 취재진에게 "자신이 암살될 것을 우려해 경찰을 살해했다"고 주장하는 등 훨씬수설했다.

경찰은 성씨에게 눈으로 머리를 맞은 이모씨를 상대로 피해자 조사를 해 범행 동기와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할 예정이다.

황교안 국무총리 "조선업 고용지원 대책 추진 중"

황교안 국무총리는 21일 "지난 6월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해 고용지원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황 총리는 이날 오후 부산시청에서 열린 동남권역 5개 시도지사들과의 간담회

에서 "경남·울산·부산 지역은 조선업 밀집 지역으로,

지역경제가 큰 타격을 받을 수 있어 특단의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 "조만간 조선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과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도 발표(10월 말)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황 총리는 "기업 구조조정은 그 과정이 힘들고 어렵지만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

굴하기 위해서 꼭 해내야 하는 작업"이라면서 "정부는 구조조정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실업 문제와 협력업체 및 지역경제 등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손학규 "안철수 현상, 아직 우리 사회에 유효… 다시 살려야"

손학규 민주당 전 대표는 21일 "안철수 현상이랄까. 아직도 우리 사회에 유효하다는 생각이니까 그런 걸 다시 살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손 전 대표의 탈당 후 행보와 관련,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와의 제3지대 연대설이 부상된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손 전 대표는 이날 오후 부인 이윤영씨와 함께 구기동 자택을 나서면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정계복귀 선언과 함께 펴낸 책 '나의 목민심사-강진일기'에 나오는 국민의당 안 전 대표 관련 대목에 대해 상기 질문을 받고 책 내용 그대로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 책에서 지난 8월 안 전 대표가 전남 강진으로 찾아와 합

류 제안을 하자 "우리 둘이 힘을 합쳐 10년 이상 갈 수 있는 정권교체를 합시다"라고 답했다고 밝힌 바 있다. 손 전 대표는 상경 후 안 전 대표와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과 연락했느냐는 질문에는 "전 한 질문을 받고 책 내용 그대로다"고 답했다. 국민의당 입장 여부에 대한 질문을 받고는 "하하"라며 기자들에게 "오래 기다리게 해서 미안하다"며 웃음으로 반 응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이천열 의원의 탈당 선언에 대해서는 "아침에 그 얘기 듣고 하지 말라고 했더니 '아이 저한테 맡겨주십시오'라고 했더니"면서 "이후 다시 전화가 안 됐고 문자를 보냈는데 TV를 보니 탈당을 했더라"고 손 전 대표는 말했다.



홈페이지 www.worldvision.or.kr 후원 문의 및 신청 02-2078-7000

귀중하게 보셨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병자들을 부르러 오셔서 병을 고쳐주셨고 죄인들을 부르러 오셔서 죄를 사해주셨고 상처 받은 사람들을 부르러 오셔서 상처를 싸매어주셨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계속해서 병 중에 있는 자들에게 위로와 사람의 은혜를 더욱 풍성하게 베푸시고, 계속해서 죄악의 세력에 자리를 받으면서 회개와 기도와 예배에 전력을 다하여야 하고 사랑과 섬김의 삶을 살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회개와 기도와 예배와 사랑과 섬김의 삶을 살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바라보고 또 바라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 합니다. 오늘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참으로 넓고 깊고 오묘하다고 생각합니다. 병든 자들과 죄인들과 상처받은 자들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으려면 예수님을 깊이 만나는 회개와 기도와 예배에 전력을 다하여야 하고 사랑과 섬김의 삶을 살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성자 예수님께서는 건강한 자들보다는 병든 자들을 의인들보다는 죄인들을 편한 자들보다는 상처받은 자들을 더 귀중하게 보시며 부르시고 귀중하게 사용하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들 중의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 바울과 한경직 목사님이라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이제 한 말씀만 더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을 향해서 우리들도 질병과 고난과 상황과 아픔을 지니고 사는 사람들을 사랑으로 돌아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질병과 고난과 가난과 상황과 아픔을 지닌 사람들을 사랑으로 돌아보는 사람들을 귀중하게 보시고 그리고 어떨 때는 질병과 악함과 죄성을 물에 지니고 회개와 간구의 기도를 드리는 사람들을 귀중하게 보시고 귀중하게 사용하신다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 때에 임금이 그 오른 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아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 된 나라를 상속하라 내가 주릴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주리신 것을 보고 공궤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혔나이까 어느 때에 가서 봤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

[한국YMCA 성명서] GMO 반대 및 GMO 벼 시험재배의 중단을 촉구한다

GMO는 생명의 근원을 위협하는 행위

GMO 농식품은 생명의 원초적인 성질을 인위적인 공학기술로 조작, 변형시켜 생명체에 존재하지 않는 인위적 생명체를 생산해내면서 생명체의 본질과 질서를 파괴하는 인류의 재앙이 될 수 있는 위험한 생물들이다.

특히 이는 하나님의 생명창조와 섭리에 대한 근원적이고 전면적인 도전이요, 돌이킬 수 없는 죄악이다. 생명체들이 갖고 있는 고유한 본성과 경계를 허물고, 동식물간, 종간의 벽을 허물어 인위적 생명체를 만들어내는 것은 생명공동체의 근원부터 무너뜨리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GMO의 부작용과 피해 드러나

이미 각국에서 행한 수많은 실험과 여러 곳에서 발생한 사건들이 GMO의 심각한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GMO 식품을 먹인 동물실험을 통해 암 발병율의 증가, 불임, 난임의 확산, 면역력의 감소, 기형아의 증가, 수명의 단축 등 여러 문제들이 드러났다. 또한 GMO 콩을 대규모로 재배하고 있는 아르헨티나의 차코주에서 발생한 끔찍한 사건들은 더 이상 GMO 농산물이 인간 및 생명체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GMO는 다국적 기업의 수익증가 수단 일뿐

GMO를 통해서는 농민들에게는 소득

증대, 식량증산을 통한 기아문제의 해결이라는 논리아래 개발되었으나 실제적으로 기아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농민은 소득증대가 아닌 다국적 기업의 종자와 제초제 장사의 수익구조로 악용되었다.

세계 어느 나라도 하지 않고 있는 주식을 GMO로 생산하고자 하는 정부

세계 어느 나라도 주식을 GMO로 개발하지 않는다. 미국도 주식인 밀은 GMO로 재배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우리의 주식인 벼를 GMO로 개발하고 산업용으로 시험 재배하는 행위는 백년지대개인 농업을 무너뜨리고, 주식인 벼를 GMO로 생산하여 국민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겠다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GMO 벼 시험재배는 우리나라 전체 농식물의 생태계 교란행위

전북 완주에서 진행되고 있는 GMO 벼의 시험재배는 실험실에서 진행되는 단순한 과학실험수준이 아니라 재배단지 내에서 대단위로 풍靡화인 벼를 재배하는 것이다.

이는 우리나라 전체 농식물의 생태계 교란을 일으킬 것이라는 것은 자명하다.

이에 한국YMCA는 정부와 농촌진흥청에 요구한다.

첫째, 현재 진행되고 있는 GMO 벼 시험재배를 즉각 중단하고 GMO 농식품 개



지난 20일 부산시청 광장에서 열린 GMO 반대 부산시민행동 발족 기자회견의 모습.

발언구를 즉각 중단하라.

둘째, 현재까지 진행됨으로써 주변에

GMO 벼로 인해 유전자 변형의 영향을 받은 지역 및 농식물에 대한 현황을 모니터하고 보상하라.

셋째, 한국은 GMO 청정지역으로 선포하여 향후 GMO 농식품은 어떠한 경우에도 재배되지 않도록 법적으로 보장하라.

넷째, 이미 수입된 GMO 식품에 대한 표시제를 강화하고 더 이상의 GMO 식품이 수입되지 않도록 수입을 금지하라.

한국YMCA

우체국 예금에서 우리 모두를 위한 미래의 꿈을 함께 하겠습니다.

똑똑한 금융

우체국으로 시작하자!

더 스마트해진
우체국 예금

www.eostbank.go.kr

고객센터 1588-1900